DBpia

「 삼국사기 」 「 삼국유사 」 이문의 음운론적 연구
운미의 대응을 중심으로

A Phonological Study on the Multiple Characters of Samguksagi and Samgukyusa

저자 (Authors)
김무림
Moo Rim Kim

출처 (Source)
한국어학 14, 2001.12, 93-116(24 pages)
Korean Linguistics 14, 2001.12, 93-116(2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어학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Linguis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8358

APA Style
김무림 (2001). 「 삼국사기 」 「 삼국유사 」 이문의 음운론적 연구. 한국어학, 14, 93-11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8 11:0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어학 제13집(2001.12.30), 한국어학회(pp.93~116)

「三國史記」「三國遺事」 異文의 音韻論的 硏究*

—韻尾의 對應을 中心으로—

金 武 林

Abstract

This thesis aims at phonological study on the multiple characters of *Samguksagi* and *Samgukyusa*. There are three respects at the phonological analysis on the sino-korean characters. Those are concerned with initial, vowel, and ending each other. Specially this thesis takes the focus at the ending of syllable in the multiple characters of *Samguksagi* and *Samgukyusa*. In this thesis I argue that phonetic features of the multiple characters of sino-korean are based on the ancient Chinese nearly.

주요어 : 異文, 韻尾,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1. 導入

古代 國語의 연구에 있어서 「三國史記」(이하 史記)와 「三國遺事」(이하 遺事) 소재의 언어 자료가 갖는 가치는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無比한 것이다. 특히 「史記」와 「遺事」 소재의 異文은 고대 국어의 어휘 및 음운 체계를 살피는 데에 직접적인 가치를 갖는다.[1] 「史記」와 「遺事」의 異文 자료에 대한 음운론적인 연구는 漢字音의 대응 관계를 밝히는 것이므로, 결국 聲母와 韻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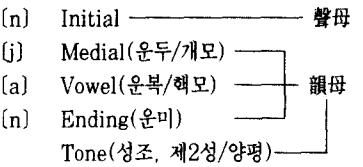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0-041-A00038).

1) 本稿에서 사용하는 異文은 동일 어휘 표기에 複數로 나타나는 異表記의 개념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의 대응에 대한 분석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漢字의 내부는 IMVE/T의 요소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계층적 구조로 분석된다.

(1) 年[njan]의 음절 구조



한자음의 역사에서 上古에서 中古, 그리고 中古에서 近古 및 近代로의 이행을 개관하면, 가장 특기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韻尾의 변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韻尾에 있어서도 入聲 韻尾의 생성과 변화는 上古音을 재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關鍵이 되려니와 近代 漢語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史記」와 「遺事」 소재의 고유 명사가 기록되었을 시기는 「史記」와 「遺事」의 편찬보다 시대적으로 훨씬 앞선 高麗 이전의 것이라 하겠으므로, 「史記」와 「遺事」의 異文에 나타난 韻尾의 대응은 漢語史의 上古와 中古의 영역을 넘나드는 시대적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한자음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上古音(서기 6세기 이전), 中古音(6~7세기 무렵), 近古音(8~13세기 무렵), 近代音(14~19세기 무렵), 現代音(20세기 이후) 등의 시대 분류에 의해 추적되며, 문헌에 의한 실증적 연구는 中古音이 展望과 回顧의 기준이 된다.

本稿에서는 「史記」와 「遺事」의 異文 중에서 韻尾의 대응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漢字의 韻尾의 종류는 '-i, -u, -ø(zero)' 등의 모음 및 無韻尾로 분류되는 陰韻尾(陰聲韻), '-m, -n, -ŋ' 등의 鼻音으로 분류되는 陽韻尾(陽聲韻), 그리고 '-k, -t, -p' 등의 파열 자음으로 분류되는 入韻尾(入聲韻) 등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本稿의 초점은 이러한 韻尾들 간의 분류적 대응 관계를 중고음과 상고음을 염두에 들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있다.

本稿의 논의를 위하여 선행될 작업은 「史記」와 「遺事」의 異文을 가리는 일이다. 文獻上에 있어서 異文의 성립 요건은 共時性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玉馬縣本高句麗古斯馬縣景德王改名今奉化縣(史記 35-8)'과 같은 改名 기록으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부터 추출되는 '玉馬 : 古斯馬'의 대응은 문헌상의 공시적 異文 자료가 될 수 없다. 기존의 논의들에서 이러한 대응 자료를 공시적 이문처럼 다룬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金武林(2000)에서는 문헌상 '或作, 或云, 一作, 一云, 又, 又云, 異稱' 등에 의한 공시적 관계로 놓이는 異文 자료를 「史記」와 「遺事」에 한정하여 284 항목을 채록하였다. 本稿의 논의는 金武林(2000)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다.

2. 韻尾 對應의 分析

韻尾 대응의 관건은 中古音을 기준으로 할 때와 상고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응 관계의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데에 있다. 陰聲韻과 대응하는 入聲韻 및 陽聲韻의 문제, 그리고 陰聲韻에 상호간의 대응을 음운론적, 또는 음운사적 관점에서 살피는 것은 삼국 시대 및 통일 신라 시대의 한자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하여 金武林(2000)에서 제시한 異文 자료에서 韻尾의 대응에 초점을 두어 자료를 분류하되, 분석의 범위는 나라별 분류에 의한 것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였고, 일련으로 부여한 자료 번호를 제시하였다.

2.1. 高句麗 자료 분석

高句麗의 同音 관계 異文으로 추정되는 자료 목록에서 韻尾 대응의 분석에 해당되는 異文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자료 앞의 번호는 金武林(2000)에 제시한 일련 번호이므로, 韻尾 대응의 해당 여부에 대한 비판적인 종합적 검토 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2)]

(2) 對應 韻尾別 고구려 異文 자료
가. 제1차 자료

2) 異文의 근거가 되는 문헌의 기사 내용은 金武林(2000)에 수록하였으므로, 지면을 아끼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이문 용례만 보이는 것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① 陰聲韻-陰聲韻

〈010〉 个-高　〈024〉 固-句　〈046/047〉 內-奴
〈055〉 泥-尒　〈064〉 圖-屠　〈065〉 道-都
〈070〉 道-頭　〈075〉 豆-頭　〈095〉 盧-友
〈097〉 累-瑠-類-琉-孺　〈098〉 婁-留-憂
〈100〉 留-璃-利　〈108〉 馬-買　〈113〉 買-米
〈114〉 買-彌　〈143〉 斯-史　〈178〉 召-鄒史　〈178〉 召-鄒
〈196〉 阿-我　〈197〉 牙-耶　〈200〉 耶-夜　〈200〉 耶-夜
〈211〉 優-于　〈240〉 才-助　〈252〉 朱-鄒　〈252〉 朱-鄒-雛
〈272〉 蒲-休　〈273〉 何-河

② 陽聲韻-陽聲韻

〈204〉 延-迎　〈072〉 童-幢　〈083〉 欖-攬
〈088〉 連-璉　〈111〉 滿-漫　〈167〉 先-仙

③ 入聲韻-入聲韻

〈202〉 藥-若

④ 陰聲韻-陽聲韻

〈080〉 羅-良　〈115〉 牟-蒙

⑤ 陰聲韻-入聲韻

〈144〉 奢-薩　〈150〉 史-悉　〈164〉 西-瑟
〈213〉 于-郁　〈214〉 憂-乙　〈219〉 尒-乙

⑥ 陽聲韻-入聲韻

〈193〉 薪-息

나. 제2차 참고 자료

〈003〉 加-各-客　〈029〉 仇(乙)-屈　〈099〉 婁-離
〈138〉 夫-稟　〈156〉 斯(由)-釗　〈159〉 相-揷
〈169〉 省(知)-述　〈180〉 首-述　〈181〉 首-新
〈185〉 舜-勝　〈192〉 市-丁　〈201〉 若(只)-衣
〈203〉 於(支)-翼　〈231〉 伊-翼

위의 異文 자료에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대응 자료는 제1차 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의심스러운 대응은 참고할 수 있도록 제2차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제2차 자료에서 〈003, 099, 138, 192, 203, 231〉 등은 최소 대립 구조로 보기 어려우며, 〈029, 156, 169, 201〉 등은 최소 대립이 아니면서 아울러 一 對 多의 구조이기 때문에, 〈180, 181〉 등은 음훈독 여부가 정확하지 않고, 〈185〉는 고구려 자체의 기록이 아닌 까닭이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대응 예는 논의 자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료로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주목할 韻尾의 동음성은 다른 韻部 사이에 성립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聲調를 고려하지 않으면 동일한 운부에 속하는 〈064 圖-屠, 075 豆-頭, 196 阿-我, 200 耶-夜, 273 何-河〉 등은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아울러 介母의 차이밖에 없는 〈197 牙-夜〉 역시 논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고구려 자료의 특색은 조선의 전승 한자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고음 관련의 역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귀납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자료로는 〈010 个-高, 046/047 內-奴, 097 累-瑠-類-琉-孺, 100 留-璃-利, 113 買-米, 114 買-彌〉 등을 들 수 있다.

(3) 〈010, 046, 047, 097, 100, 113, 114〉의 재구음[3]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个 kɑ(箇韻開一)	魚部/-r, -ø
	高 kɑu(豪韻開一)	宵部/-g, -w
나.	內 nuɐi(隊韻合一)	微部/-d, -r, -i
	奴 nu(模韻合一)	魚部/-g, -ɣ, -ø
다.	累 lĭwə(紙韻合三)	微部/-r, -i
	瑠 lĭəu(尤韻開三)	幽部/-g, -w, -ø
	類 lwi(至韻合三)	微部/-d, -r, -i
	琉 lĭəu(尤韻開三)	幽部/-g, -w, -ø
	孺 ȵu(虞韻合三)	侯部/-g, -w, -ø
라.	留 lĭəu(尤韻開三)	幽部/-g, -w, -ø
	璃 lĭe(支韻開三)	歌部/-ø, -r, -i
	利 lĭ(至韻開三)	脂部/-d, -r, -i
마.	買 mai(蟹韻開二)	支部/-g, -ɣ, -ø

3) 中古音 및 上古音의 便覽에는 周法高 主編(1974), 余迺永 著(1985), 李珍華 周長楫 編撰(1993) 등을 참조하였다. 음표로서 제시하는 중고음은 李珍華 周長楫 編撰(1993)에 의거하였다. 周法高 主編(1974)의 상고음란에는 董同龢(1944), B. Karlgren(1957), 周法高(1970) 등 三家의 재구음을 보이고 있다. 上古音의 재구, 특히 韻尾의 재구에는 견해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本稿에서는 便宜를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자세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상고 운미는 대개의 경우 제가의 견해에 의하여 복수로 보였으며 무운미는 -ø로 표기하였다. 특히 上古의 歌部는 -r 韻尾도 함께 제시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米 miei(薺韻開四) 脂部/-d, -r, -i
彌 mǐe(支韻開三) 脂部/-d, -r, -i

위에 든 다섯 대응을 검토하면 중고음에서 상고음으로 소급할수록 동음성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에 열거한 예들은 운미를 우선 고려한 것이지만, 〈024 固-句, 095 盧-友, 098 婁-留-憂, 108 馬-買, 211 優-于, 272 蒲-休〉 등은 상고음에 소급하여도 운미의 대응을 찾을 수는 있으나 핵모의 차이는 오히려 벌어지므로, 각 대응의 동음성은 중고음에 가까운 상태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언급하지 않은 〈055 泥-尒, 065 道-都, 070 道-頭, 143 斯-史, 178 召-鄒, 252 朱-鄒-雛〉 등은 중고음이나 상고음의 어느 경우에도 동음성의 일탈이 심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응 예들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40 才-助〉는 성모의 유사성을 제외하면 중고음이나 상고음에서 동음성을 찾기가 어렵다.

陽聲韻 對 陽聲韻, 그리고 入聲韻 對 入聲韻의 대응에서는 〈204 延-迎〉을 제외하면 운미의 대응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 '延'은 중고음 jiɛn(仙韻開三/線韻開三)이며, 상고음은 元部로서 운미는 중고음과 다르지 않다. '迎'은 중고음 ŋiɛ ŋ(庚韻開三/映韻開三)이며, 상고음은 陽部로서 운미는 중고음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하시모토(Hashimoto/橋本万太郎 1970)에서는 梗攝의 중고음 운미를 -ŋ/-c로 재구하였고, 더 나아가 薛鳳生(1985)에서는 梗攝뿐만 아니라 曾攝까지도 이와 같은 경구개 운미로 재구하였다.[4] 이와 같은 논의에 힘입어 權仁翰(1997)에서는 '延-迎'과 같은 庚韻과 仙韻의 동음성을 운미 -n으로 이해하면서, 〈204〉와 같은 표기의 근거를 중고음 기반으로 해석하였다. 한편으로 현대 漢語의 閩東話를 보면 陽聲韻 모두가 -ŋ으로 실현되고 있고, 조선 한자음에서도 '牝, 賓, 頻, 嚬' 등과 같은 한자가 '빙'으로 전승된 경우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延-迎'의 동음성의 기준을 반드시 치경 운미 -n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그러나 '迎'의 조선 한자음이 1496년 간행인 『眞

4) 하시모토(1970)와 薛鳳生(1985)의 논의에 대한 것은 崔玲愛(2000: 246-248)에서 재인용하였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言勸供」(23, 24)에서와 같이 '연'으로 전승된 경우도 있으므로, '延-迎'의 동음성은 치경 운미 -n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陰聲韻과 대응하는 陽聲韻 및 入聲韻, 그리고 陽聲韻과 入聲韻 대응을 논의하기 위하여 용례자에 대한 재구음을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080, 115, 144, 164, 213, 214, 219, 193〉의 재구음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羅	la(歌韻開一)	歌部/-ø, -r, -i
良	liaŋ(陽韻開三)	陽部/-ŋ
나. 牟	mĭau(尤韻開三)	幽部/-g, -ɣ, -ø
蒙	muŋ(東韻合一)	東部/-ŋ
다. 奢	ɕĭa(麻韻開三)	魚部/-g, -ɣ, -ø
薩	sɑt(曷韻開一)	月部/-t
라. 史	ʃĭə(止韻開三)	之部/-g, -ɣ, -ø
悉	sĭĕt(質韻開三)	質部/-t
마. 西	siei(齊韻開四)	脂部/-d, -r, -i
瑟	ʃĭet(櫛韻開二)	質部/-t
바. 于	ɣĭu(虞韻合三)	魚部/-g, -ɣ, -ø
郁	ĭuk(屋韻合三)	職部/-k
사. 憂	ĭəu(尤韻開三)	幽部/-g, -w, -ø
乙	ĭĕt(質韻開三)	質部/-t
아. 尒	ȵĭe(紙韻開三)	脂部/(-d), -r, -i
자. 薪	sĭĕn(眞韻開三)	眞部/-n
息	sĭək(職韻開三)	職部/-k

陰聲韻에 대응하는 陽聲韻과 入聲韻에 있어서 운미의 동음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080, 115, 144, 150, 193, 214〉 등으로서 대분이다.[5] 그러나 〈164, 213〉의 경우는 韻尾의 대응에서 상고음의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西-瑟'의 대응에서는 '河西良, 何瑟羅'에서 마지막 한자의 초성이 舌側音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서 連音 관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특히 상고

5) '羅-良'의 차음표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權仁翰(1996)에서는 鵄洛의 국호를 *ka-lay로 재구하여 羅의 가능한 운미 -r과 良의 연구개 운미 -ŋ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받침의 -ɣ를 표기하기 위하여 '耶, 良, 洛, 羅' 등의 운미가 서로 다른 한자들이 변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에는 懷疑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음 관련을 주목할 수 있는 대응은 〈219 尒-乙〉이라 할 수 있다. '尒-乙'의 동음성은 〈055 泥-尒〉의 대응과 관련하여도 韻尾 -r의 가능성을 전제할 때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제2차 참고 자료에서 〈185 舜-勝〉의 동음 관계는 〈204 延-迎〉에서 살핀 바와 같은 운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舜'은 臻攝이며 '勝'은 曾攝으로서, '勝'의 운미는 薛鳳生(1985)에 의하면 -ɲ으로 재구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029 仇(乙)-屈〉과 〈203 於(支)-翼〉의 대응은 '乙'이 음절말의 -l/-r을 반영하고, '支'가 음절말의 -k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려고 한 것이지만, 좀 더 종합적인 검토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支'는 중고음에서는 正齒音인 章紐이지만 상고음에서는 성모가 구개화적인 연구개 파열음으로 재구되기도 하고(董同龢의 재구음), 閩南話의 경우 ki로 발음되기도 하므로 k- 성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2.2. 百濟 자료 분석

百濟의 同音 관계 異文으로 추정되는 자료 목록에서 韻尾 대응의 분석에 해당되는 異文을 제1차 자료와 제2차 자료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5) 韻尾 대응의 백제 異文 자료

가. 제1차 자료

① 陰聲韻-陰聲韻

〈021〉 堦-偕　〈023〉 姑-古　〈033〉 仇-貴
〈036〉 伎-只　〈037〉 奈-乃　〈060〉 大-帝
〈093〉 鹵-婁　〈109〉 麻-牟　〈148〉 泗-所
〈151〉 斯-自　〈155〉 沙-嵯　〈177〉 素-肖
〈179〉 首-須　〈232〉 伊-海　〈250〉 周-洲
〈260〉 支-兮

② 陽聲韻-陽聲韻

〈086〉 良-陵　〈117〉 文-汶　〈171〉 成-淨
〈245〉 貞-眞　〈253〉 仲-忠　〈267〉 沈-炭

③ 入聲韻-入聲韻

〈161〉 塞-捉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④ 陰聲韻-陽聲韻
〈136〉 夫-分
⑤ 陰聲韻-入聲韻
〈257〉 旨-直　　〈221〉 知-乙
⑥ 陽聲韻-入聲韻
〈017〉 斤-乞　　〈242〉 賸-眞-直
나. 제2차 참고 자료
〈011〉 開-古　　〈050〉 乃-仍(乙) 〈096〉 祿(只)-要
〈137〉 夫-沘　　〈229〉 尒(陵)-仁 〈270〉 耽-耽(牟)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같은 韻部에 속하는 〈021 堦-偕, 023 姑-古, 250 周-洲〉 등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백제 자료의 특색은 조선의 전승 한자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구려 자료의 성격과 유사하게 상고음 관련의 역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귀납을 뒷받침하는 대응 자료로는 〈033 仇-貴, 037 奈-乃, 060 大-帝, 109 麻-牟, 148 泗-所, 151 斯-自〉 등을 우선 들 수 있다.

(6) 〈033, 037, 060, 109, 148, 151〉의 재구음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仇	gĭəu(尤韻開三)	幽部/-g, -w, -ø
貴	kĭwəi(未韻合三)	微部/-d, -r, -ø
나. 奈	nɑi(泰韻開一)	月部/-d, -r, -t
	nɑ(箇韻開一)	(歌部/-ø, -r, -i)
乃	nəi(海韻開一)	之部/-g, -ɣ, -ø
다. 大	dɑi(泰韻開一)	月部/-d, -r, -t
	dɑ(箇韻開一)	(歌部/-ø, -r, -i)
帝	tiei(霽韻開四)	支部/-g, -ɣ, -ø
라. 麻	ma(麻韻開二)	歌部/-ø, -r, -i
牟	mĭəu(尤韻開三)	幽部/-g,-w, -ø
마. 泗	si(至韻開三)	脂部/-d, -r, -i
所	ʃĭo(語韻合三)	魚部/-g, -ɣ, -ø
바. 斯	sĭe(支韻開三)	支部/-g, -ɣ, -ø
自	dzi(至韻開三)	脂部/-d, -r, -i

위에 열거한 여섯 대응은 상고음에 이르면 특히 韻尾에 있어서 동음성을 잃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는다. 그러므로 이들 異文의 동음성을 상고음에서 찾기는 어렵다. 중고음의 또 다른 층위와 당시 백제어의 음운 체계, 그리고 이로부터 형성된 백제 한자음의 기반 위에서 (6)에 보인 동음성은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6)에 든 대응은 韻尾를 염두에 두고 고른 것이지만, 〈093 鹵-婁, 155 沙-嵯, 177 素-肖, 179 首-須〉 등은 비록 상고음에서 韻尾의 차이는 없을지라도, 중고음보다 상고음에서 동음성을 찾을 근거가 더 있는 것은 아니다.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상고음에 이르러 동음성이 더 확보되는 경우는 〈036 伎-只, 260 支-兮〉의 두 예이다. '伎-只'는 상고음에서 모두 支部이며 성모에 있어서도 k-의 동음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支-兮' 역시 상고음에서 모두 支部이며 성모의 동음성도 k-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대응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232 伊-海〉의 대응은 중고음이나 상고음 모두에서 찾기 어려우므로, 異文의 성립 요건을 동음 차원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陽聲韻 對 陽聲韻, 그리고 入聲韻 對 入聲韻의 대응에서 〈117 文-汶〉은 완전히 같은 음이며, 〈171 成-淨, 253 仲-忠〉은 성모의 차이와 성조의 차이가 있으나 중고음이나 상고음에서 같은 韻部에 속하므로 동음성이 문제될 것이 없다. 운부가 다른 나머지의 재구음은 다음과 같다.

(7) 〈086, 245, 267, 161〉의 재구음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良	liaŋ(陽韻開三)	陽部/-ŋ
陵	liəŋ(蒸韻開三)	蒸部/-ŋ
나. 貞	tɕieŋ(淸韻開三)	耕部/-ŋ
眞	tɕiěn(眞韻開三)	眞部/-n
다. 沈	ɖiěm/ɕiěm(侵韻開三/寢韻開三)	侵部/-m
炭	thɑn(翰韻開一)	元部/-n
라. 塞	səi(代韻開一)	之部/-g, -ɣ, -ø
	sək(德韻開一)	職部/-k
捉	tʃɔk(覺韻開二)	屋部/-k

위의 대응에서 韻尾가 문제될 곳은 (7-나,다)이다. 〈245 貞-眞〉의 대응에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貞'은 梗攝으로서 前述한 바와 같이 중고음의 운미가 -ɲ로 재구될 수 있으므로 운미를 포함하여 '眞'과의 동음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6] 〈267 沈-炭〉의 동음성은 성모를 제외한 부분에서 찾기가 어렵다. 아마도 訓讀되었거나 誤記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陰聲韻과 대응하는 陽聲韻 및 入聲韻, 그리고 陽聲韻과 入聲韻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하여 용례자에 대한 재구음을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8) 〈136, 257, 221, 017, 242〉의 재구음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夫	pĭu/bĭu(虞韻合三)	魚部/-g, -ɣ, -ø
分	pĭuən/bĭuən(文韻合三/問韻合三)	文部/-n
나. 旨	tɕi(旨韻開三)	脂部/-d, -r, -i
直	ɖĭək(職韻開三)[7]	職部/-k
다. 知	tĭe(支韻開三)	支部/-g, -ɣ, -ø
乙	ĭĕt(質韻開三)	質部/-t
라. 斤	kĭən(殷韻開三)	文部/-n
乞	khĭət(迄韻開三)	物部/-t
마. 腆	thien(銑韻開四)	文部/-n
眞	tɕĭĕn(眞韻開三)	眞部/-n

〈136 夫-分, 257 旨-直〉 등의 동음성은 운미를 제외한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이들은 공시적 의미에서 개별적인 한자음 차원의 동음성을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문헌적 공시성이 음운론적 공시성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史記」와 「遺事」의 異文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017 斤-乞〉의 동음성 역시 운미를 제외한 부분에서 찾게 되지만, '乞'의 전승음 운미를 -l/-r로 설정하면 음운 변화의 측면에서 -n과의 상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乞'과 '斤'의 字形이 약간 유사하여 확실한 대응 자료라 하기에는 망서려지는 면이 있다. 〈242 腆-直-眞〉의 동음성은 운미를 고려한다면 '直'에 대한 음가의 해석에 관건이 있다. 한편으로 '直'의 字形은 아

6) 도수희(1999:64-68)에서는 貞峴과 眞峴을 동일 지명의 異表記로 보지 않고 별개의 지명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7) 음표 ɖ는 구개화된 d의 표기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래에 두 획을 첨가하면 '眞'과 같게 되는 字形 相似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응 관계의 설정에 조심스럽다.

제2차 자료는 불확실한 것과 一 對 二 대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들이다. 〈096 祿(只)-要〉와 〈270 耽-耽(牟)〉의 '只'와 '牟'는 각각 운미의 -k와 -m의 표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의 '乙, 陵' 역시 운미 표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牽强附會할 일은 아니다.

2.3. 新羅 자료 분석

新羅의 同音 관계 異文으로 추정되는 자료 목록에서 韻尾 대응의 분석에 해당되는 異文을 제1차 자료와 제2차의 자료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신라의 異文 자료에는 伽倻의 것도 포함시키기로 하겠다.

(9) 對應 韻尾別 신라 異文 자료

가. 제1차 자료

① 陰聲韻-陰聲韻

〈001〉 加-伽-駕　〈002〉 嘉-加　〈005〉 加-阿
〈009〉 盖-介-个　〈012〉 愷-悌　〈014〉 巨-居
〈015〉 居-矩　〈022〉 雞-兮　〈025〉 高-仇
〈030〉 俱-仇　〈031〉 俱-仇　〈035〉 岐-祇
〈038〉 奈-乃　〈039〉 那-羅-尸-耶　〈040〉 奈-利
〈041〉 那-耶　〈043〉 奈-那　〈048〉 內-惱
〈052〉 弩-禮　〈053〉 奴-如　〈062〉 道-途-刀
〈066〉 道-刀　〈067〉 道-都　〈068〉 道-刀
〈070〉 道-頭　〈081〉 羅-盧　〈090〉 禮-理
〈091〉 禮-也　〈092〉 老-路　〈103〉 理-異
〈105〉 摩-磨-麻-昧　〈106〉 麻-馬　〈110〉 麼-彌
〈116〉 武-茂　〈120〉 美-未　〈121〉 味-未
〈122〉 未-彌　〈131〉 甫-部　〈132〉 寶-巴
〈133〉 保-巴　〈134〉 寶-巴　〈140〉 備-毗
〈141〉 羆-罷　〈149〉 思-詩　〈151〉 斯-自
〈152〉 士-知-次　〈162〉 舒-庶-逍
〈173〉 召-炤-照-祖-鄒　〈174〉 炤-召
〈176〉 少-制　〈196〉 阿-我　〈209〉 乂-銳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212〉 祐-佑　〈215〉 祐-誼　〈218〉 魏-維
〈223〉 義-依　〈224〉 懿-義　〈225〉 義-懿
〈226〉 義-儀　〈227〉 義-懿　〈228〉 義-和
〈231〉 異-伊　〈234〉 玆-慈　〈235〉 子-之
〈236〉 慈-次　〈247〉 帝-梯　〈248〉 諸-助
〈254〉 祇-只　〈255〉 祇-只　〈256〉 地-智
〈259〉 知-處　〈264〉 次-處　〈268〉 沱-他
〈271〉 波-破　〈275〉 海-好　〈278〉 花-化
〈279〉 和-花　〈280〉 和-花　〈281〉 暉-徽
〈282〉 暉-休　〈284〉 熙-姬

② 陽聲韻-陽聲韻
〈006〉 干-邯　〈007〉 干-浪-粲-翰-邯　〈016〉 巾-近
〈019〉 兼-謙　〈027〉 恭-洪　〈028〉 寬-官
〈042〉 娘-郎　〈051〉 年-連　〈073〉 銅-東
〈084〉 狼-良　〈085〉 良-亮　〈101〉 隆-顯
〈112〉 曼-万　〈123〉 閔-敏　〈124〉 飯-芬
〈142〉 賓-氷　〈157〉 山-三　〈158〉 彡-深
〈160〉 狀-昌　〈168〉 選-撰　〈170〉 聖-成
〈172〉 誠-正　〈184〉 順-舜　〈186〉 純-俊
〈187〉 純-春　〈188〉 純-春　〈189〉 昇-升
〈190〉 升-宗　〈194〉 新-神　〈195〉 愼-信
〈199〉 巖-壞　〈205〉 延-迎　〈206〉 衍-云-玄
〈207〉 穎-永　〈208〉 永-玄　〈217〉 運-雲
〈237〉 璋-將　〈238〉 莊-將　〈239〉 章-昌
〈241〉 爭-正　〈243〉 貞-定　〈244〉 訂-證
〈246〉 貞-昌　〈249〉 宗-從　〈261〉 辰-秦
〈265〉 浪-判　〈274〉 韓-漢　〈283〉 欽-歆

③ 入聲韻-入聲韻
〈008〉 葛-闕　〈018〉 乞-訖　〈026〉 骨-忽
〈034〉 及-級　〈058〉 荅-沓　〈077〉 得-力
〈119〉 勿-密　〈125〉 發-罰-伐-弗　〈126〉 發-伐
〈127〉 發-佛-弗　〈128〉 伐-伏　〈139〉 佛-弗
〈183〉 叔-夙　〈216〉 郁-勗　〈220〉 乙-一
〈233〉 日-質

④ 陰聲韻-陽聲韻
〈004〉 茄-騭　〈045〉 內-寧-呼　〈074〉 同-豆
〈087〉 良-耶　〈094〉 露-陵　〈146〉 沙-彡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182〉 樹-春　〈222〉 膺-疑　〈266〉 楸-春
〈276〉 海-欣-希-喜　〈277〉 許-欣

⑤ 陰聲韻-入聲韻

〈020〉 稽-吉　〈032〉 求-屈　〈049〉 內-訥
〈054〉 泥-熱　〈057〉 多-達　〈059〉 大-度-哲
〈061〉 德-刀　〈069〉 道-督-涿　〈071〉 道-涿
〈082〉 落-耶　〈089〉 禮-祿　〈102〉 勒-尸
〈107〉 麻-末　〈118〉 勿-彌　〈130〉 寶-卜
〈135〉 福-卜-伏-巴　〈145〉 沙-薩　〈147〉 思-色-息
〈153〉 斯-叱　〈154〉 師-叱　〈163〉 西-栖-瑟
〈165〉 西-瑟　〈175〉 蘇-迊　〈191〉 尸-乙
〈210〉 于-羽-鬱　〈251〉 走-迭　〈262〉 叱-吹
〈269〉 脫-吐

⑥ 陽聲韻-入聲韻

〈076〉 得-等　〈104〉 臨-立

⑦ 陰聲韻-陽聲韻-入聲韻

〈063〉 道-覩-頓-腯　〈079〉 羅-落-洛-良-耶

나. 제2차 자료

〈056〉 多(斯)-沓　〈078〉 等(乙)-地-智
〈129〉 保(皐)-福-巴　〈166〉 舒-伊
〈198〉 娥利-娥伊-閼　〈230〉 伊-伊(尸)
〈258〉 知-叱　〈263〉 次(雄)-充

신라의 異文 자료는 고구려 및 백제에 비하여 훨씬 풍부하므로, 신라의 이문 자료에 대한 검토는 귀납적 일반화의 가능성 提高를 기대하게 한다. 모두 80 용례에 이르는 陰聲韻 對 陰聲韻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신라 자료의 특색은 조선의 전승 한자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고구려 및 백제 자료의 성격과 유사하게 상고음 관련의 역사성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귀납을 뒷받침하는 대응 자료로는 借訓 표기의 가능성이 있는 〈176 少-制〉를 제외하면 〈038 奈-乃, 039/041 那-羅-尸-耶, 048 內-惱, 052 弩-禮, 090 禮-理, 106 麻-馬, 110 麼-彌, 140 備-毗, 151 斯-自, 152 士-知-次, 215 祐-誼, 231 異-伊, 236 慈-次, 247 帝-梯, 256 地-智, 264 次-處, 282 暉-休〉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용례자의 재구음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10) 〈038, 039/041, 048, 052, 090, 106, 110, 140, 151, 152, 215, 231, 236, 247, 256, 264, 282〉의 재구음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奈	nɑi(泰韻開一)	月部/-t, -d, -r
	nɑ(箇韻開一)	歌部/-ø, -r, -i
乃	nɒi(海韻開一)	之部/-g, -ɣ
나. 那	nɑ(歌韻開一)	歌部/-ø, -r, -i
羅	la(歌韻開一)	歌部/-ø, -r, -i
尸	ɕi(脂韻開三)	脂部/-d, -r, -i
耶	jĭa(麻韻開三)	魚部/-g, -ɣ, -ø
다. 內	nuɒi(隊韻合一)	微部/-d, -r, -i, -b/-p
惱	nau(晧開韻一)	宵部/-g, -w
라. 弩	nu(姥韻合一)	魚部/-g, -ɣ, -ø
禮	liei(薺韻開四)	脂部/-d, -r -i
마. 理	lĭə(止韻開三)	之部/-g, -ɣ
바. 麻	ma(麻韻開二)	歌部/-ø, -r, -i
馬	ma(馬韻開二)	魚部/-g, -ɣ, -ø
사. 麼	muɑ(果韻合一)	
彌	mĭe(支韻開三)	脂部/-r, -i
아. 備	bi(至韻開三)	之部/-g, -ɣ, -ø
毗	bi(脂韻開三)	脂部/-d, -r, -i
자. 斯	sĭe(支韻開)	支部/-g, -ɣ, -ø
自	dzi(至韻開三)	脂部/-d, -r, -i
차. 士	ʤĭə(止韻開三)	之部/-g, -ɣ, -ø
知	ʧĭe(支韻開三)	支部/-g, -ɣ, -ø
次	tshi(至韻開三)	脂部/-d, -r, -i
카. 祐	ɣĭəu(宥韻開三)	之部/-g, -ɣ, -ø
誼	ŋĭe(寘韻開三)	歌部/-ø, -r, -i
타. 異	jiə(志韻開三)	之部/-g, -ɣ, -ø
伊	I(脂韻開三)	脂部/-d, -r, -i
파. 慈	dzĭə(之韻開三)	之部/-g, -ɣ, -ø
하. 帝	tiei(霽韻開四)	支部/-g, -ɣ, -ø
梯	thiei(齊韻開四)	脂部/-d, -r, -i
거. 地	di(至韻開三)	歌部/-ø, -r, -i
智	ʧĭe(寘韻開三)	支部/-g, -ɣ, -ø
너. 處	ʧhĭo(語合三)	魚部/-g, -ɣ, -ø
더. 暉	hĭwəi(微韻合三)	微部/-d, -r, -i
休	hĭəu(尤韻開三)	幽部/-g, -w, -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이상의 17 대응 異文은 중고음 기반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음성적 대응이 (10)의 재구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고음 기반에서는 오히려 參差를 가져오는 경우이다. 상고음 운미는 가능한 경우를 거의 망라한 것이므로 비록 가설적인 再構音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추정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陰類 對 陰類의 대응에서 중고음보다 상고음에서 원만한 대응이 수립되는 경우는 〈228 義-和〉의 一例에 불과하다. 즉 '義-和'는 중고음에서 眞韻開三(ŋĭe)과 戈韻合一(ɣuɑ)로서 서로 갈리지만, 상고음에서는 모두 歌部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28〉의 대응은 借音에 의한 異文인가의 문제에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9-가-②,③)에 제시한 陽聲韻 對 陽聲韻, 入聲韻의 對 入聲韻의 대응에서는 특히 운미에 있어서 중고음과 상고음의 차이가 없으므로 대응에 문제될 곳이 별로 없다. 다만 〈265 飡-判, 077 得-力, 128 伐-伏〉의 대응은 借音의 동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265 飡-判〉은 聲母의 불일치가 있으며, 〈077 得-力, 128 伐-伏〉의 '力'과 '伏'은 字形이 각각 '刀, 伐'과 유사하므로 同音性 異文의 차원에서 무리하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9-가-④,⑤)에 제시한 이문은 陰聲韻에 대응하는 陽聲韻과 入聲韻을 모은 것이다. 고대 국어의 고유 명사 표기의 異文에서 이 부분의 同音性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9-가-④)에 제시한 10 용례의 대응에서 중고음이나 상고음으로 이들의 동음성이 설명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것은 中古의 陰聲韻이 상고음에서 陽聲韻으로 재구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중고의 음성운이 상고음에서 입성운으로 재구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러한 재구음에 의존한다면 (9-가-⑤)의 동음성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음성운 대 입성운의 대응은 모두 28 용례에 달하며, 이 중에서 상고음에서 입성운으로 재구되는 논의를 받아 들여 동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최대 19 용례에 이르기 때문에 50 퍼센트를 넘는다.

(11) 〈020, 049, 054, 057, 061, 069/071, 082, 107, 118, 130, 135, 145, 147, 154, 163/165, 191, 262〉의 재구음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중고음/등운〉		〈상고 운부/운미〉
가. 稽	kiei(齊韻開四)	脂部/-d, -r, -i
吉	kĭĕt(質韻開三)	質部/-t
나. 內	nuɒi(隊韻合一)	微部/-d, -r, -i, -b/-p
訥	nuət(沒韻合一)	物部/-t
다. 泥	niei(齊韻開四)	脂部/-d, -r, -i
熱	ȵiɛt(薛韻開三)	月部/-t
라. 多	tɑ(歌韻開一)	歌部/-ø, -r, -i
達	dɑt(曷韻開一)	月部/-t
마. 德	tək(德韻開一)	職部/-k
刀	tɑu(豪韻開一)	宵部/-g, -w
바. 道	dɑu(晧韻開一)	幽部/-g, -w, -ø
督	tuok(沃韻合一)	覺部/-k
涿	ʈɔk(覺韻開二)	屋部/-k
사. 落	lɑk(鐸韻開一)	鐸部/-k
耶	jĭa(麻韻開三)	魚部/-g, -ɣ, -ø
아. 麻	ma(麻韻開二)	歌部/-ø, -r, -i
末	muɑt(末韻合一)	月部/-t
자. 勿	miuət(物韻合三)	物部/-t
彌	mĭe(支韻開三)	脂部/-d, -r, -i
차. 寶	pɑu(晧韻開一)	幽部/-g, -w, -ø
卜	puk(屋韻合一)	屋部/-k
카. 福	pĭuk(屋韻合三)	職部/-k
伏	bĭuk(屋韻合三)	職部/-k
	bĭəu(宥韻開三)	
巴	pa(麻韻開二)	魚部/-g, -ɣ, -ø
타. 沙	ʃa(麻韻開二)	歌部/-ø, -r, -i
薩	sɑt(曷韻開一)	月部/-t
파. 思	sĭə(之韻開三)	之部/-g, -ɣ, -ø
色	ʃĭək(職韻開三)	職部/-k
息	sĭək(職韻開三)	職部/-k
하. 師	ʃi(脂韻開三)	脂部/-d, -r, -i
叱	ʦhĭĕt(質韻開三)	質部/-t
거. 西	siei(齊韻開四)	脂部/-d, -r, -i
栖	siei(齊韻開四)	脂部/-d, -r, -i
瑟	ʃiet(櫛韻開二)	質部/-t
너. 尸	ɕi(脂韻開三)	脂部/-d, -r, -i
乙	ĭĕt(質韻開三)	質部/-t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더. 叱 tɕhiĕt(質韻開三) 質部/-t
吹 tɕhĭwe(支韻合三) 歌部/-ø, -r, -i

음성운 대 입성운의 대응은 상고음의 가능한 재구음을 대상으로 할 때,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동음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하여 (9-가-⑤)의 異文에서 (11)에 제시한 경우를 상고음에 기반을 둔 신라의 한자음으로 바로 이해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라 하기 어렵다. 그것은 (9-가-④,⑥,⑦)의 陰聲韻과 陽聲韻의 대응, 또는 陽聲韻과 入聲韻의 대응이 상고음의 차원에서 전혀 동음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관련시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중고음에서 陰聲韻은 상고음에서 거의 入聲韻으로 재구될 수 있기 때문에 陰聲韻과 入聲韻의 대응은 상고음으로 回顧시킬 경우 이미 상당한 경우의 동음성을 내포하게 되는 구조적 조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울러 入聲韻으로 재구되는 경우에도 연구개 입성(-g)과 치경 입성(-d)에 배분되기 때문에 동음성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11)의 동음 가능성은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검증되는 단계의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11)의 상고음에서 歌部의 韻尾에 대한 재구음은 다른 韻部보다 특히 假說的인 차원에서 재구된 것이다. (11)의 동음성은 歌部의 -r 韻尾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r 운미의 성립은 상고의 매우 이른 시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8] 그러므로 歌部의 -r 운미와 입성 운미 -t와의 동음성은 시기적으로 매우 이른 시기에 성립된 한자음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전제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2.4. 韻尾 脫落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살핀 운미 대응의 결과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함하여 상고음적 특수성에 중고음적 일반성이라는 말로써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異文의 동음성 기반을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차적으로 중고음의 기반 위

8) 陰聲韻에 대한 有韻尾 재구는 대개 상고음에서도 초기 시기에 해당하는 周代(B.C. 7~3세기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듯이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異文의 이해에 중요한 것은 陰聲韻에 대응하는 陽聲韻이나 入聲韻이라 할 수 있다. 陰聲韻에 대응하는 入聲韻은 必然인지 아니면 偶然인지 알 수 없으나 확률상으로 상고음에 의하여 同音性이 확보되는 경우가 제법 있으나, 陽聲韻은 중고음이나 상고음에서 전혀 동음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삼국 시대의 한자음에서 韻尾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다음과 같은 韻尾 脫落의 양상을 자료 번호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韻尾 脫落의 양상

가. 고구려 자료에서

① ŋ → ø/ _#〈080, 115〉

② l → ø/ _#〈144〉

l → ø/ _t〈150〉

l → ø/ _l〈164〉

l → ø/ _p〈214〉

l → ø/ _m〈219〉

③ k → ø/ _o〈213〉

나. 백제 자료에서

① n → ø/ _s〈136〉

② k → ø/ _#〈257〉

다. 신라 자료에서

① ŋ → ø/ _#〈045, 087, 094〉

ŋ → ø/ _m〈074〉

ŋ → ø/ _l(n)〈222〉

② n → ø/ _#〈182, 276, 277〉

n → ø/ _n〈266〉

③ m → ø/ _m〈146〉

④ l → ø/ _#〈107, 118, 163〉

l → ø/ _t〈020〉

l → ø/ _p〈032〉

l → ø/ _h〈054, 153〉

l → ø/ _s(ʦ)〈145〉

l → ø/ _k(h)〈049, 154, 165, 269〉

l → ø/ _l〈059, 210〉

l → ø/ _i〈057〉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l → ø/ _i(/a)〈251〉
⑤ k → ø/ _#〈061, 069, 071, 082, 089, 102, 135〉
k → ø/ _h(k)〈130〉
k → ø/ _t〈147〉
⑥ p → ø/ _p〈175〉

이와 같은 韻尾 脫落의 양상은 공시적 규칙의 모습으로 제시하였으나, 결코 공시적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며, 오히려 어느 정도의 통시적, 또는 방언적 형태 변화(또는 변이)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은 '求佛-屈弗'에서와 같이 상보적 환경이 아닌 경우에도 이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2)에 제시한 운미 탈락의 양상에서 同音 省略 현상으로 볼 수 있는 〈164, 266, 146, 059, 210, 130, 175〉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그 탈락의 경향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3) 韻尾 脫落의 경향
가. 語末에서 탈락이 일어나기 쉽다.
나. 'ㄹ'의 탈락은 다양한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다. 유음이나 비음과 같은 공명음의 탈락이 자주 일어난다.
라. 어말의 'ㄱ' 탈락이 많다.
마. 순음 계열의 운미 탈락이 없다.

(13-라)의 경우와 같은 'ㄱ' 탈락은 (11)에 제시한 바와 같은 상고음 관련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陰聲韻이 入聲韻으로 재구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논의의 성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삼국의 한자음 성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음의 일반성에 상고음의 특수성으로 요약되므로 (13)에 제시한 탈락 경향이 크게 손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13-마)의 경향은 脣, 舌, 喉로 이어지는 운미의 전개에서 脣音의 有標性(marked)이 가장 뚜렷하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표적인 조음 위치로는 舌音이 지목되고, 그 다음으로는 연구개-후음이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舌音의 無標性은 국어의 사잇소리의 정체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관련되고, 연구개-후음의 무표성은 북방 漢語의 운미의 탈락 과정에서 '-p, -t, -k'가 성대 파열음(?)으로 단일화된 상황을 근거로 할 수 있으나 본고의 논의로서 깊이 천착할 일은 아니다.

한편, 語末의 탈락 경향은 고대 국어의 開音節性과도 관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2차 자료의 一 對 二의 대응에서 개음절과 관련시킬 수 있는 異文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4) 제2차 자료에서 開音節을 암시하는 자료
가. 〈029〉 仇(乙)-屈【高地】
나. 〈129〉 保(皐)-福-巴【新人】
다. 〈198〉 娥(利)-娥(伊)-閟【新人】
라. 〈270〉 耽-耽(牟)【百地】

본고에서 제시한 (14)와 같은 자료에서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음절에 의한 韻尾의 발화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려니와 변이음적 상황에서 탈락된 형태로 전이하기도 용이한 음운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의 不破音化 진행은 '파열음〉 마찰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기존의 견해는 고대 국어의 개음절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9] 그러나 개음절성과 관련된 논의는 (13-마)에서와 같이 추론을 거듭하게 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본고의 논의와 직접 결부시키지는 않겠다.[10]

3. 맺음말

지금까지 「史記」와 「遺事」에서 가린 284 對應例의 異文을 통하여 주로 韻尾의 대응에 초점을 두어 음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문헌상의 공시적 異文 자료를 고구려, 백제, 신라의 나라별 분류와 검토를 하였으나, 고구려

9) 국어의 不破音化는 '파열음〉 마찰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불파음화의 진행과 완성에 대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金武林(1992, 1995, 1997)에서 논의하였다.

10) 고대 국어 음절말 자음의 구조와 발음에 대해서는 姜信沆(1990)의 논의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조심스럽게 논의되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와 백제의 자료는 신라의 그것에 비하여 풍부하지 못하므로 논의의 비중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異文의 채록은 金武林(2000)에 밝힌 바대로 '一云, 或作' 등의 문헌상의 공시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동음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통시적 변화에 의한 異文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흔히 異文에 대한 同音性 논의에서 접하기 쉬운 견해는 지나치게 상고음적 경향으로 삼국의 한자음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前述의 (11)에 제시한 바와 같은 용례를 토대로 상고음적 기반을 주장하면서 기타의 반례가 되는 대응 관계를 관련시키지 않는 것은 균형 있는 태도라고 하기 어렵다. 특히 상고음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陰聲韻 대 陰聲韻의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인데, 기존의 논의에서는 陰聲韻 대 入聲韻의 대응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陰聲韻 대 入聲韻의 대응은 상고 운미의 재구음과 운미의 구조적 類別을 감안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상당한 비율로(약 50%) 同音性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陰聲韻 대 陰聲韻의 대응까지를 고려한 본고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 상고음적 특수성에 중고음적 일반성이라는 귀납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파악된다.

韻尾의 脫落이란 기제는 異文의 동음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운미의 탈락은 공시적인 규칙이라기보다는 공시적 경향, 또는 어느 정도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한된 자료와 한자음의 불투명성에 가려져 있는 것이 異文의 정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한계는 야기된다. 異文에 대한 연구는 聲母, 介母, 核母, 韻尾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제 韻尾에 대한 개략을 파악했을 뿐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는 韻尾에 대한 분석의 再考와 함께 聲母, 介母, 核母에 이르는 논의의 확장이라 하겠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참고 문헌

◇ 資料

「三國史記」韓國古典叢書 2. 서울: 民族文化推進會(1982).

「三國遺事」崔南善 編. 서울: 瑞文文化社(1983).

◇ 論著

姜信沆. 1990. "古代國語의 音節末子音에 대하여." 「大東文化硏究」(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5.

權仁瀚. 1996.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 모색." 「울산어문논집」(울산대 국문과) 11.

權仁瀚. 1997. "한자음의 변화." 「國語史硏究」 서울: 태학사.

金武林. 1999. "三國史記 복수 음독 지명 자료의 음운사적 과제." 「地名學」(한국지명학회) 2.

金武林. 2000. "史記 遺事의 同音 異文 資料."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서울: 月印.

南豊鉉. 1995. "國語史 史料로서의 三國史記에 대한 檢討."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서울: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都守熙. 1977. 「百濟語 硏究」 서울: 百濟文化社.

都守熙. 1987. 「百濟語 硏究 1」 서울: 百濟文化開發硏究院.

都守熙. 1999. 「한국지명 연구」 서울: 이회.

兪昌均. 1991. 「삼국시대의 漢字音」 서울: 民音社.

李敦柱. 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서울: 탑출판사.

장세경. 1990. 「고대차자 복수인명 표기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조규태. 1986. 「고대국어 음운 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최남희. 1999.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 연구」 서울: 박이정.

崔玲愛. 2000. 「中國語音韻學」 서울: 통나무.

李珍華·周長楫. 1993.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周法高(編). 1974. 「漢字古今音彙」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藤堂明保. 1965. 「漢字語源辭典」 東京: 學燈社.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

김무림(Kim, Moo-rim)
강릉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10-702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 번지
전화 : 033-640-2109
전자우편 : moorim@kangnung.ac.kr

접수일 : 2001. 10. 8
게재결정일 : 2001. 12. 8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7/08 11:07(KST)